

이 건축물은 여의도의 증권회사단지의 북서측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축물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시대에 적응하는 Modernity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우리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이 쌍용투자증권사옥은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몇가지 점이 있다.

첫째, 여의도라는 서울에 있어서 얼마 안되는 대단위 계획지역에 세워졌다는 점.

둘째, 여의도 내에서도 증권단지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지내에 건립되었다는 점.

셋째, 30층이라는 초고층건물 이면서 Intelligent화의 정도가 최첨단이라고 자부한다는 점.

넷째, 국내의 건축설계사무소와 해외건축설계사무소가 협동으로 설계를 하였다는 점 등으

로 정리되겠다.

따라서 본 비평에서는 이러한 점에 의거, 우리에게 이 건축물이 시사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를 정리하는 선에서 논하고자 한다. 또한 건물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 요소와 개념에 대하여는 인식적 차원에서 논하고자 한다.

여의도—실험적 Modernity의 실패

이 쌍용투자증권 사옥이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는 당시 서울의 새로운 도심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욕구와 소위 서구화된 새로운 거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서울시 당국의 야심찬 계획을 기본으로 출발하고 있다. 60년대 초의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투자가 필요하였으며, 당시의 건축가 김수근을 위시한 젊은 건축가 그룹에 의해 여의도의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진다. 이 계획에 의하면, 근대건축의 여러가지 철칙이 응용되어 있다. 입체적인 도로시스템을 이용한 도로망의 설치, 전체를 시스템화한 인위적이고 냉철한 지역의 분할, 녹지와 태양광선, 대지의 활용 등이 주요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당시에는 우리의 근대성이 이를 따르고 수용하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서구적인 Modernism적 개념으로 풀이하였으므로 그 적용가능성의 문제는 존재하였다고 하겠다.

그후의 여의도의 현상을 보면, 초기의 의욕적인 계획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크게 변질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여의도광장의 형성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거대한 광장이 형성되므로 해서 여의도는 남북을 잇는 거창한 통로와 거대한 행사 장소로 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여의도 자체의 동서 연계는 절단되어 버린 것이다. 이 광장은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 각기의 도로는 갈기갈기 찢어진 영성한 바둑판형태로 남아버리게 되었고 길과 대지라는 단순 관계로 하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의도에서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거나 Context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전체 여의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시 당국은 그래서 결국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도시에서의 인식성

The Cognition in Urban Community

원도시건축+ELLERBE BEKET 作 쌍용투자증권사옥

李範宰 /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Peom-Jae

위한 땅장사에 열중하게 되었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무산시켰다. 여의도는 대지를 잘라서 팔아먹는 예비금고의 역할이상이 아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의도에 대한 장기적인 건축적 Vision이나, 각 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는 거대한 빈땅이 되었고, 이 빈땅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행위만 일어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광장의 스케일에 대한 강박에 의한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은 황량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의도는 거리와 시정(市井)이 없다. 있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기능과 그 기능을 만족시켜주는 덩어리들인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황량함과 피폐함을 더 부가시키는 것은 각기 자기의 인식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은 고층건축물들의 군이다.

증권단지의 실체

쌍용투자증권사옥이 위치하는 곳은 여의도에 이루어진 증권단지중 두번째로 형성된 것이다. 이 사옥이 속해진 단지보다 전에 형성된 첫번째 단지는 이미 고층의 건축물로서 형성되어 있고, 이 두번째 단지는 총9개의 증권사가 들어서게 되어 있었다. 이는 증권회사가 서로 한 단지내에 들어옴으로써 월스트리트와 같은 금융가를 형성하였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보아도 특수한 성격을 가진 오피스가를 조성하려면 그 단지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향과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이 세워져야 한다. 이는 바로 지역계획 또는 단지계획의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가, 도시설계자, 건축가, 건축설계자 등을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하나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립하여야 한다. 물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의욕이 기본이 되는 명확한 것이다. 당시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초기 스터디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의뢰라는 것이 단순히 요식행위로 끝난다면 이는 정말로 국가 예산의 낭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단지는 초기에 지하층의 공동개발과 단지내부의 Pedestrian Street, Pedestrian Shopping Mall이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황은 전혀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다만 한가지 남아 있는 것은 각 대지에서 15m씩 후퇴하여 30m의 폭을 이룬 단지내부 중앙의 Pedestrian Road뿐이다. 그나마 이것이 남아 있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각기 건축물이 각기의 대지에 세워져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건축법의 맹점은 바로 이러한 단지내 공동개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각기 건축물에 저촉되는 하위 법령의 조정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너무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이러한 배타적인 법규의 상이성

으로 말미암아 단지의 융통성있는 개발의 방법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왕에 서울시 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법의 정신에서 표방하는 건축환경의 개선이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방향제시와 그에 따른 귀찮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도록 시도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없이 단지를 일률적으로 9개의 땅으로 분할하여 9개의 지주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의 현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原因)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대지를 매입한 지주들은 또한 단순한 의미로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건축을 부각시켜서 자산의 증식을 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니, 건축주들의 문화적, 건축적인 기초배경과 수준이 오늘날의 현상을 초래하게 된 또하나의 원인(遠因)이 되었다. 각기의 대지를 소유한 건축주에 의해 선택되어진 건축가들은 각기의 건축물설계를 함에 있어서 각기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전체를 생각하거나 단지전반에 대한 유기적 해석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9개의 건축주를 설득하거나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당시 이러한 점에 우려하여 최중순간까지 9개 건축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정작업을 하려고 하였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 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가지의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현재에 보는 것과 같은 제각기 인식성을 중요한 건축적 개념으로 하는 건축물군이 형성되고 만 것이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인식성이라는 것은 즉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과 구별되어 보여진대거나, 나쁜 건축물과 차별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이것은 건축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속성이므로, 건축물이 이 인식성을 유일무이한 개념적 신조로 하였을 때, 그 건축물이 갖는 도시에서의 비중은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이나, 입면과 볼륨의 변화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증권단지의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증권단지는 여의도라는 섬속에 또하나의 고독한 섬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증권단지라를 섬속에서 각기의 증권회사 건축물은 또다시 각기의 섬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섬과 섬을 겨우 이어주고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단지내부의 30m폭의 Pedestrian Road일 뿐이다. 가느다란 운하하나가 각 섬을 이어주는 통로일 뿐이다.

도시의 다양한 활력과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의미있게 연계시켜주는 가로를 상실한 건물들이 제각기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증권단지로서 도시와 건축, 가로와 건축의 관계설정을 거부한 것이다.

외국건축가와의 협동문제-공동설계의 진정한 의미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개방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다시피 많은 외국 건축가나
외국의 유명 건축사무소의 설계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개방이라고 새삼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것이 공
공연한 비밀스러움이 내포된 것이라면 2년후의 개방이
란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들의 공개적 개방이라
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확대해석하여 이 글에서 논쟁점을 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쌍용투자증권사
육이 바로 외국건축사무소와 우리나라 유수의 건축사무
소와 공동으로 설계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외국 건축
가와의 공동설계라는 행태를 일별하는 것은 다소 이 건
축물을 이해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다.

흔히 우리나라 건축사무소와 외국의 건축사무소의 공
동설계라는 것에 대한 관점은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작품의 질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협동의 형식에 대한 것에 국한되는 경향이 아닌가 싶다.
우선 그점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보면, 우리와 외국건축
가와의 사이에 누가 실제로 설계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
는가 하는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건축가가 계획하고 디자인한 것들을 국내 설계
사무소가 소위 허가행위를 대행하여 주고 실시설계를
하는 '밀착아주는 일' 을 해왔기 때문에, 외국의 건축가
또는 건축사무소와의 공동설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매도되기 쉽다. 또한 사실로 그러한 행태를 흔
히 보여준 예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
어 간다해도 무어라고 변명할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
다.

우리나라 건축주는 실제로 우리나라 건축가나 건축사
무소는 잘 믿지 않는다. 같은 말이라도 외국건축가가 이
야기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건축가가
주장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이
는 소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계
층의 건축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터지는 일이지는
하지만, 이는 건축가나 설계사무소 등의 당사자들이 스
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그들 스스로가 외국인들의
'밀착아주기' 를 자청한 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
다고 해도 건축주가 외국 건축가의 뒷바라지를 요구해
도 이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경우가 더 많을 지도 모
르겠다. 어떠한가? '공동' 이라는 미명하에 불평등
한 작업에 놓여졌던 경우가 많았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
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건축가와 공동설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계획하고 설계한 것에 대한 국
내 건축사무소의 마무리작업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설계' 라는 개념이 성립되
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우리 건축계가 앞으
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사실 외국인과 공동

설계를 한 후 이를 자기들만의 것으로 발표한다거나, 아
예 그러한 설계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떳떳하게
밝히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 Concept는
외국인 누구누구, 실시설계는 우리 건축가 누구누구 라
고 밝혀서 명확히 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
인과 공동으로 설계를 한 작품을 단독으로 한 것같이 중
요한 상을 수상한 경우도 있는데, 같이 설계한 외국인에
게도 그 상을 공동으로 수상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밝혀지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는 것
이었다면,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쌍용투자증권사육은 미국의 베케트와 우리나라의
원도시건축이 공동으로 계획한 건축물이다. 사실 어느
부분이 그쪽의 아이디어이고 어느 부분이 이쪽의 생각
이고 Concept나하고 다구치는 것은 공동설계라는 의미
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건
축물은 당연히 베케트와 원도시라는 두 사무실의 공동
작품인 것이다. 어디의 생각이 더 강하고 옳았는가, 어
디의 영향력이 더 강력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
다. 이미 두쪽에서는 협의와 양보와 끝없는 의견의 대립
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공동작업이다. 우리가 갖는 정서
는 당연히 우리 건축가측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속
이 시원해지겠지만,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생각인 것같
다.

그런데 왜 전부들 그런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가?
그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배
신감같은 것과 일종의 허탈감이라고나 할까하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실제로 외국인과의 협동 또는 공동설계를
할 수 있는 국내 건축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일종의 선택
되어진 계층의 건축가인 것이다. 대규모의 설계사무소
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건축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고 독보적인 경지에서 작품을 발표하
고, 젊은 세대의 후진 건축가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되는
건축가들이 소위 남의 뒷바라지나 하는 꼴꼴을 보기가
안스러워서 혹은나 하는 기우에서 나오는 염려인 것으
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공동설계의 역할분담을 공정하게
나타내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으
로서 공동설계의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옳은 것
이다. 국제현상설계같은 것을 하면서, 외국의 건축가
에게 거액의 금액을 건네주고 아이디어를 사오는 행위
같은 것은 그만하고 떳떳하게 그야말로 공동설계를 하
는 것이 더 멋있는 것이다.

건축과 인식성이라는 테마

이 건축물은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 단 하나의 교
리는 무엇인가하면, 다른 어떤 건축물보다 돋보이게 보
여야 한다는 바로 그점이다. 즉 인식성이다. 그런데 그

인식성을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풀이하였는데, 그것은 공간Space로서도 아니고, 도시와의 연계성 Context도 아니고, (사실로 이 증권단지에서 이 Context를 논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므로)그 어느 것도 아닌 단순한 차별성 Distinguishness이다.

다른 건물과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테마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건축물은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이 건물은 각각에 위치함으로써 여의도 중심부에서 보면 가장 잘 인식되는 장소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건물보다 고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시각적 효과는 대단하다.

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소위 인식성을 가진 건축물Landmark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가지는 그 강렬한 인식성은 다른 건물을 배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투시도를 그릴때 쓰는 수법은 자기가 설계하는 건축물은 정식으로 잘 그리고 주위의 건물은 흐릿하게 배경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인데, 이 건물은 너무 강력하여, 마치 투시도에 아직도 그냥 있는 것같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 건축물은 아직 건축주Client의 것이다. 자기것이라는 의미가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의 것이 아닌 것 같다. 건물은 자기 것이지만, 건축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 건물이 세워진 대지는 물론 건축주의 땅이지만, 그 땅은 서울 그리고 여의도라는 영원한 우리의 것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증권단지자체가 도시Urban과 도시성Urbanism의 상실이라는 전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건축물이 도시와 당당하게 대립하려면 도시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 건물의 요소 요소에 사용된 모든 부분에 대한 빈틈없고 잘 짜여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이 갖는 아주 이기적인 차별성으로서의 인식성때문에 건조한 Dry느낌을 갖게 된다. 결국 건축물이 그 곳에서 있을 이유가 인식성이라는 아주 명확하지만 단순한 하나의 테마로서만 풀이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건축주는 이 건물이 심볼Symbol로서 인식되기를 바랐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것들이 비록 건조Dry하다고 해도 더 좋았을 것 같다. 인식성이 있다는 것과 심볼릭Symbolic하다는 것은 구별하고 싶은바, 오히려 이 건물이 인식성의 단계를 포함하거나, 넘어서서 심볼릭했으면 한다. 우리의 심볼, 여의도의 심볼...이 되면 더 가까운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도시와의 관계나, 거리와의 관계도 연계성이라는 심리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여진다.

Post-Modern Sky Scrapper?

이 건물은 30층을 R.C구조로 형성하였다. 저층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요철이 사용되면서 무방위 형

태의 입면과 최상부 원통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도시를 밝히는 '랜턴'을 상징하였다. 건축적인 디자인 개념은 '정사각형속의 원형circle in the square'라고 밝히고 있다.

R.C구조를 사용한 것은 건축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30층의 건물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철골로 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상식을 뒤집는다는 것은 그 사고의 다양함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쌍용투자증권이 국내 굴지의 시멘트회사를 모태로 하여 이를 건축에서도 인식성과 심볼의 하나로 삼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점이 구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적용될 수는 없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외부의 마감재료가 돌로 되어있는 것은 건설하는 도중에 변경된 것이고 원래는 샌드블러쉬드였었다는 것은 건축적인 디자인 개념의 실현과 인식성의 명료성을 부가해주는 좋은 요소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점은 아쉬운 것이라 생각된다.

전형적인 Center Core형식으로서 중앙부에 원형의 홀을 두고 네 귀퉁이에 각각 엘리베이터, 계단, 설비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다. 중앙부 내부 홀은 전체 평면 구성이 그렇듯이 무방향성이 되어 다소간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무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마도 언제 어디서라도 잘 보이고 잘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이해된다.

이 건축물에서 가장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2층 휴게공간과 1층의 입구홀 부분이다. 1층 출입구로 들어가면, 앞뒤로 서로 연결되어 환통하는 공간과 2층의 휴게실공간과의 수직적 연계공간이 아주 인간적인 스케일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상당한 세련도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과 뒷부분의 Pedestrian Road와의 연계는 전체의 잘 짜여진 공간체계와 더불어 의미 있는 장소로서 인식되어진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모듈이 3.75m 사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모듈이 벽면, 평면, 천정, 층고 등의 모든 구석구석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물내부는 잘 정돈된 안방과 같은 차분한 분위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호감이 가는 부분이다.

외부와 내부의 모든 것에는 이러한 모듈때문만은 아닌 내재하는 질서가 있다고 보여진다. 구태여 부연한다면, 평면은 우리것과 같은 스케일과 느낌을 준다면, 외피는 소위 익숙해지기에는 좀더 인내가 필요한 외국적 입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이른바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Post-Modern Sky Scrapper'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